HUES

갈매기

ANTON CHEKHOV
THE SEAGULL

작 안톤체홉
번역 윤광진
각색.연출 우여진

삶과 사랑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비극

체홉 스스로 '4막으로 된 코메디'라고 이름 붙인 '갈매기'
호숫가를 떠나지 못하는 갈매기처럼
엇갈린 사랑과 이룰 수 없는 꿈 사이에서 서성이는 인생들을 그린다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얽히고설킨 애정과 정열은
결국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비극을 향해 치닫지만,
극이 끝난 후 관객들은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사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심각한데 우스꽝스럽고, 웃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나고
익숙한가 싶다가 낯설어지고, 사랑할수록 잔인해지는,
삶의 아이러니와 페이소스를 느낄 수 있다



01
지금 봐도 공감이 되고 재밌는 고전

> 체홉의 긴 희곡을 과감하게 압축·생략하고 일상적인 분위기와 함께 각각 캐릭터에 생기를 넣었다
>
> —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 극단 휴즈의 <갈매기>는 제가 본 체홉 연극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연극이었습니다! 안톤 체홉의 작품을 보고 싶어도 지루할까봐 주저했던 분들이 있다면 꼭 보러오세요.
>
> — 안선경 감독

‘세상이 아무리 빛의 속도로 변한다고 해도 삶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라는 연출의 말처럼,

130년 전 러시아 희곡 속 인물들은
지금의 우리와 닮아 있다.

한 관객은 ‘안톤체홉의 작품이 왜 현대에도 오랫동안 공연되는지 알게 했던 공연이었다’고 적었다.

‘고전극에 공연 시간만 130분가량 되어서 지루할까 걱정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흡입력이 있었다’, ‘고전희극인데도 전혀 지루하지않았어요’라는 후기처럼,

극단휴즈의 <갈매기>는
오늘의 관객이 자기 이야기처럼 빠져들고
오래도록 여운을 품고 돌아가는 특별함이 있다.



02
배우가 보이고, 대사가 들리는 무대





> ‘배우가 보이고 대사가 들리고 체홉의 격정이 느껴진다’
>
> **— 평론가 김옥란**

> ‘연극이야말로 진정한 배우 예술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만들고 증명하는 귀한 작품’
>
> **— saram5*****

체홉극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진실이다.
극단휴즈의 <갈매기>는 그 진실을 배우의 연기로 드러낸다.

호흡, 신체의 사용, 화술, 캐릭터 해석, 앙상블 연기 등을 통해 배우들은 서로에게 진짜 영향을 주고받으며 차곡차곡 감정의 흐름을 쌓아 올린다.

‘연극이 왜 배우의 예술인지를 이 배우들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라는 관객 후기처럼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든 10명의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생생히 살아 움직인다.

03
무대 위에 재현되는 삶의 진실



“

‘지금껏 내가 본 <갈매기> 중
최고였다’

— 김현희 교수

‘지금껏 본 갈매기 중에,
아니 체홉 작품 중
가장 좋았다’

— hezin*****

**극단휴즈의 <갈매기>는 작은 무대 안에서
공간과 음악, 배우의 동선이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린다.**

장면은 극을 깨지 않고 유연하게 전환되고, 배우들의 동선은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낸다.

**연극은 10명의 인물을 고루 비추며, 4막에서 이들의 시간과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배우들의 연기로
‘체홉의 텍스트를 온전히 살아숨쉬게’ 한다.**

04
평단과 대중의 검증





‘저마다 일상에서 겪는 무력감, 암울함,
자기연민 등의 정서가 잘 표현됐다. 그런 가운데
코미디 요소를 잘 살려냈다’

— 평론가 강일중

‘전석매진인 이유가 있는 연극’

— momo********

2015년 서울 초연부터 2017년 재공연, 2019년 부산 공연,
2025년 극단휴즈 제작 공연까지, 모든 공연은
우여진(김소희)이 각색·연출했다.

2015년 초연·앵콜공연 7주간 전회전석 매진,
2017년 재공연 전회전석 매진.
2025년 공연은 제이원씨어터 객석점유율 98%를 기록했다.

10년의 시간 동안
<갈매기>는 더 깊이 있고, 단단해졌다.

05
연일 보조석까지 가득 채워주신 매진행렬

> ‘3번 봤어요. 또 보고 싶어요.’
>
> — _____n******
>
> ‘보라고 강추하고 싶지만.. 이미 거의 올매진..’
>
> — hyunee****

2025년 2월 공연(총 17일 24회) 이후에도 잔여좌석 문의와 재관람 요청이 계속되어 하루 연장공연(2회)을 추가했고, 곧이어 5월 앵콜공연으로 이어졌다.

2월 공연 최다 관람 관객은 12번을 관람했다.

관객과의 대화는 2월 4회, 5월 5회 열렸고, 다회 관람 관객에게는 배우들과의 사진, 싸인 포스터·엽서 등 한정 선물로 감사를 전했다. 한상훈 작곡의 ‘갈매기OST’는 주요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기도 했다.

인터파크 관람후기 10점 만점이었다.



2015–2025, 10년의 <갈매기>

2015 서울 초연

앵콜공연 포함 7주간 전회전석 매진

2017 재공연

전회전석 매진

2019 부산 공연

2025 극단휴즈 제작 — 제이원씨어터 · 씨어터조이 앵콜공연

제이원씨어터 객석점유율 98% · 연일 보조석까지 매진 · 하루 연장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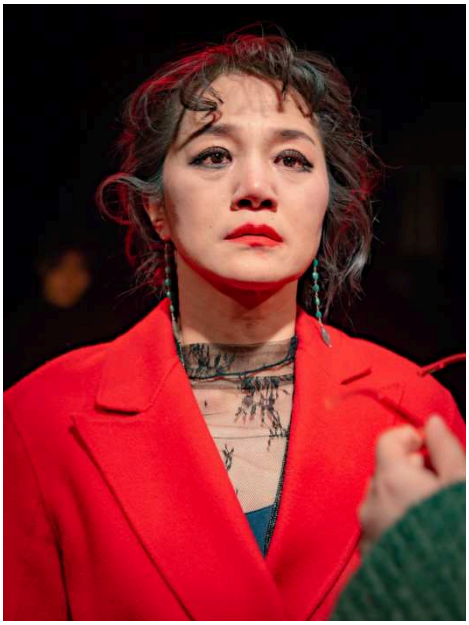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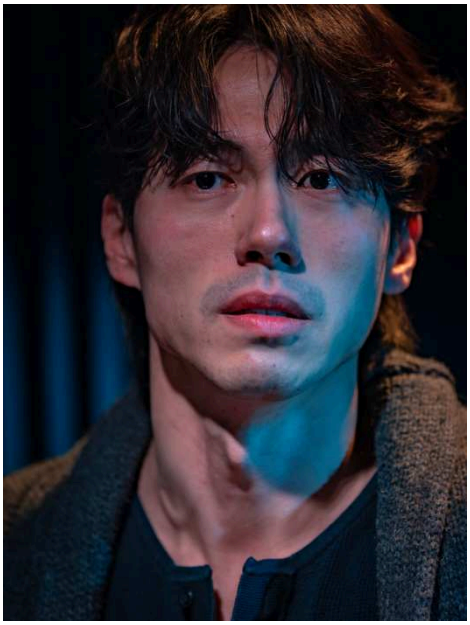




Photo © Cine Lee

평론과 추천

평론

'체홉의 긴 희곡을 과감하게 압축·생략하고 일상적인 분위기와 함께 각각 캐릭터에 생기를 넣었다'

—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배우가 보이고 대사가 들리고 체홉의 격정이 느껴진다'

— 평론가 김옥란

'저마다 일상에서 겪는 무력감, 암울함, 자기연민 등의 정서가 잘 표현됐다. 그런 가운데 코미디 요소를 잘 살려냈다'

— 평론가 강일중, <연극평론> 2015 여름호

추천

'극단 휴즈의 <갈매기>는 제가 본 체홉 연극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이 왜 배우의 예술인지를 이 배우들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안톤 체홉의 작품을 보고 싶어도 지루할까봐 주저했던 분들이 있다면 꼭 보러오세요.

— 안선경 감독

'지금껏 내가 본 <갈매기> 중 최고였다'

작은 소극장에서의 공간활용과 적절한 타이밍에 분위기를 잡아주는 음악들.
극을 깨지 않고 유연하게 이어지는 전환막 사이에 배우들의 동선을 통한 관계성의 표현들.
4막에서의 시간과 세월의 흐름에 따른 배우들의 연기는 체홉의 텍스트를 온전히 살아숨쉬게 하고 관객에게 전달하기 충분했다.

— 김현희 교수

인터파크 관람후기 10점 만점!



충격적으로 좋다
이 정도면 체홉도 무덤에서 눈을 번쩍 뜰 것만 같다

saram********

미쳤다. 이 연극!! 이게 연극이지

dbtkdxhdvmfhwprx***

별 다섯 개로도 부족한 연기와 연출력. 진짜 wow!!

moder***

배우님들 연기와 대사가 심장을 후비는 이느낌 뭐죠?

graci***

몰입감 폭발! 오랜 여운이 남는 최고의 무대

box***

지금껏 본 갈매기 중에, 아니 체홉 작품 중 가장 좋았다

hezin*****

모든 배우들이 빛나고 그들의 팬이 되는 순간

gpdnjs****

줄거리

작가지망생 뜨레쁠레프는 연인인 배우지망생 니나와 함께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여배우인 어머니 아르까지나와 그녀의 애인이자
유명한 작가인 뜨리고린에게 무시당하고 절망하고 만다

새롭게 나타난 어머니의 애인인 뜨리고린에게 마음을 빼앗긴 니나에게
상심한 뜨레쁠레프는 권총자살을 시도하나 실패하고 니나는 뜨리고린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마을을 떠난다

2년 후, 작가가 된 뜨레쁠레프는 남몰래 고향을 찾아온 니나를 만난다.
니나는 지방극단을 떠돌아다니며 변변치 않은 공연을 하며 지내는 배우가 되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추억하고
니나는 갈매기처럼 마을을 떠난다





연출의 글

우여진 I 연출

중요한 건 형식을 의식하지 않고 쓰는 거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대로 자유롭게

우리가 연기를 하든 글을 쓰든
중요한 건 명성이나 갈채가 아니었어
중요한 건 참아낸다는 거야

난 내 조카에게 소재를 하나 줄 생각이야
제목은 "뭔가 되고 싶었던 사나이"

130년 전 러시아 희곡이 아직도 무수히 심장 떨리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빛의 속도로 변한다고 해도
삶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작품은 뭔가 되고 싶었지만 크게 이룬 것 없어 보이는
우리네 인생에 대한 공감과 위로이자
잔잔하고 시시해보이는 일상이 얼마나 폭발적이고 강렬한 순간들인가를
다시 보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관객들이 이 공연과 함께 하며 다양한 삶의 순간과 지나온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길 꿈꿔봅니다.
매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작품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함께 해준 배우 스탭분들에게 매일 감동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배우들로 채워진 연습실은 늘 놀라울 정도로 온기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먹고 서로 등을 토닥인 그 순간들이
이제 관객들을 만나 그 빛을 뿜어내길 바래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자유롭게..

일상의 속내를 후벼파는 연기



이번 <갈매기>는 일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배우들은 때론 객석과의 경계를 허물기도 하며 외적인 사실성이 아닌 내적인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연기술에 도전한다.

때로는 갑작스럽고 때로는 충격적인, 예측불허의 순간들을 표현하는 연기 메소드로 신체, 발성, 화술 연기를 구성한 이번 공연은 관객과 보다 분명하고 쉽게 소통하는 연극이 될 것이다.
관객이 자기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될 이 연극에서, 10명의 배우들은 개성 있고 매력적인 인물들의 솔직한 속내를 보여줄 것이다.



‘우울한 희극’
– 현실과 꿈 사이에서 부유하는 인간들의 웃픈 이야기





<갈매기>는 체홉의 4대 장막극 중 가장 먼저 쓰인 희곡이다. 러시아 초연 당시 참혹한 실패를 겪었지만, 스타니슬랍스키가 연출한 모스크바 예술극장 공연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다시금 빛을 발했다. 그러나 체홉은 스타니슬랍스키의 해석에 불만이 많았으며, 자신의 작품이 보다 가볍고 희극적으로 표현되길 원했다고 전해진다.

<갈매기>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꿈, 욕망, 사랑, 행복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삶의 권태와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뜨레쁠레프 | 정이헌


HUES
Human Essential
아르까지나 | 김소희


HUES
Human Essential
뜨리고린 | 박종환


HUES
Human Essential
니나
박소현



쏘린 | 김동곤


HUES
Human Essential
도른 | 김철영


HUES
뽈리나
허안나



마샤 | 문재경



마샤 | 이보라


HUES
Human Essential
메드베젠꼬 | 강렬


HUES
Human Essential
샤므라예프 | 노심동

각색·연출

우여진



30년 넘게 무대에 선 연극배우이자 연출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전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동아연극상 연기상(2009, 2014)과 신인연기상(2006), 대한민국연극대상 여자연기상(2008), 김동훈 연극상(2013), 셰익스피어 어워드(2014), 서울국제연극제 신인연기상(1998)을 받았다. 현재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 전임교수(2018~). 중앙대, 동국대, 성균관대, 단국대, 경기대, 용인대, 호원대, 영산대 연극·연기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극단휴즈에서 <이 아이>(2024, 1년 안에 3차 앵콜)와 <갈매기>(2025, 객석 점유율 98%)를 연출했다.

연출 이력

극단휴즈 <이 아이>(2024~2025, 조엘 폼므라 작) <갈매기>(2025, 안톤 체홉 작)
<나잇나잇>(2026, 이신혜 작)

연극 <갈매기>(2015 초연, 2017 재공연, 2019 부산 공연) <더 콜렉터>(2022)
<두개의 달> <울고있는 저 여자> <오레스테스 3부작>(공동연출)
<곰> <청혼> <체홉의 단편은 이렇게 각색된다 - 적> <운수좋은 날> <봄봄>

뮤지컬 <우리의 보통날들>(2026, 리딩 쇼케이스)

예술감독 <헤드라인>(2026, 홍익대 PBL) <인간아, 인간아!>(2021, 부산 가마골소극장)
창작뮤지컬 <노량별곡>

지도교수 <하녀들>(영산대) 현대차그룹 대학생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연극부문 대상·연기상
창작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같은 페스티벌 뮤지컬부문 대상

창작진

원작	안톤 체홉
번역	윤광진
각색·연출	우여진
제작피디	이신혜
안무	김윤규
조명	김광훈(2월 공연) · 변정원(5월 앵콜)
음악	한상훈
무대디자인	예민현
무대감독	노심동
조연출	이수진(2월 공연) · 김세연(5월 앵콜)
기획진행	김세연(2월 공연)
포스터디자인	문재경
조명오퍼	유정인
음향오퍼	임예은

후원	작화공간
주최·주관	비포스튜디오
제작	극단휴즈

갈매기

ANTON CHEKHOV
THE SEAGULL

작 안톤체홉
번역 윤광진
각색.연출 우여진

정이헌 임 묵 김소희 임윤비 임 형 김동곤 박종환 박동비 강진휘 김철영
김경란 허안나 문재경 이보라 변진수 강 렬 노심동 정지혁 한이채 유정인

제작피디 **이신혜** 안무 **김윤규** 조명 **김광훈** 음악 **한상훈**
무대감독 **노심동** 조연출 **이수진** 포스터디자인 **문재경** 기획진행 **김세연**
후원 **작화공간** 주최·주관 **비포스튜디오** 제작 **극단휴즈**

2025. 2. 14(금) ~ 2025. 3.2(일)
제이원씨어터

갈매기

ANTON CHEKHOV
THE SEAGULL

작 안톤체홉
번역 윤광진
각색.연출 우여진

정이헌 임 묵 김소희 임윤비 김동곤 박종환 박동비 강진휘 김철영
김경란 허안나 문재경 이보라 변진수 강 렬 노심동 정지혁 박소현 노이진

제작피디 **이신혜** 안무 **김윤규** 조명 **변정원** 음악 **한상훈**
무대감독 **노심동** 조연출 **김세연** 포스터디자인 **문재경** 조명오퍼 **유정인** 음향오퍼 **임예은**
후원 **작화공간** 주최·주관 **비포스튜디오** 제작 **극단휴즈**

2025. 5. 1(목) ~ 2025. 5.25(일)
씨어터조이

2025 <갈매기>









Photo © Cine Lee

공연 사진













Photo © Cine Lee

공연 사진











Photo © Cine Lee



영혼에서 흘러나오는대로 자유롭게

<갈매기> 트레일러 영상



youtu.be/tkc_7Y7KHd0

제작기 영상

youtube.com/@VIPOstudio

극단휴즈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ueslab2024

극단휴즈 대표 이신혜
wesingwetalk@gmail.com